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지역언론 토크아보기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301호  
 전화 051-802-0916  
 홈페이지 www.bssimin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 문서번호	지역언론토크아보기2021-013
• 수 신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 발 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제 목	[지역언론토크아보기] 부산미래혁신위 활동 마무리, 지역언론은 어떻게 평가했나?
• 날 짜	2021년 5월 10일

### 부산미래혁신위 활동 마무리, 지역언론은 어떻게 평가했나?

박형준 부산시장의 인수위 역할을 해온 부산미래혁신위원회가 지난 30일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4월 12일 정식 출범 이후, 어떤 강연을 누구로부터 듣는지, 각종 회의엔 어떤 인사들이 참석했고, 선정한 과제는 무엇인지 등 지역언론은 부산미래혁신위원회 활동을 주요하게 전해왔습니다.

부산시의회 및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부산미래혁신위가 지방자치법 등에 의한 법적·행정적 설치 근거가 없음에도, 시청사 내 사무공간까지 내어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했지만 지역언론은 박형준 시장의 ‘인수위 격’이라며 그 위상을 인정해 주요하게 보도해 왔습니다.

부산미래혁신위는 활동을 마무리하며 “부산이 먼저 미래로”라는 비전 아래 6대 목표 50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3주 간 활동의 결과물이자 향후 부산시정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만큼 지역언론의 적절한 설명과 평가가 더욱 필요한 사안인데 실제 지역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부산일보, KBS부산, KNN은 부산미래혁신위가 내놓은 6개 분야 50개 과제를 나열하는데 그쳤습니다. 6개 분야 중 경제분야를 예로 들면, 지자체 기업 불시지도 점검 개선, 지방 산단 입주 업종 코드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는데, 이러한 과제들이 지역의 경제 발전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빠진 채 단순 나열에만 머물러 아쉬웠습니다.

부산MBC와 국제신문은 각각 <부산미래혁신위, 시정혁신 가능하나?>(4/29), <부산미래혁신위 50개 과제 제안…비전 ‘나열·재탕’ 한계>(5/3)에서 부산미래혁신위의 활동을 평가했습니다. 두 언론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부산미래혁신위가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제안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준비단, 트로트 거리 조성, 공교육 인공지능과 온오프라인 수업환경 구축을 대표적 예로 제시했는데, 모두 부산미래혁신위 제안보다 앞서 부산시, 시의원, 교육부가 제안했거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산MBC 4월 29일 <뉴스데스크>

국제신문 2021년 5월 3일 월요일 이슈 3

## 부산미래혁신위 50개 과제 제안... 비전 '나열·재탕' 한계

**3주간 박영준호 인수위 역할  
복지안전·해양경제·그린환경 등  
민선 9대 도시 목표 6가지 수립  
10일 해단식-백서 전달 계획**

**메가시티 등 기초사업 제시 많아  
일부 발제자 사의 추구도 눈살**

박영준호 부산시장의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해온 부산미래혁신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송철호 울산시장의 초청 강연을 끝으로 3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짧은 기간 동안 50개의 과제를 발굴해 시에 제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지만 실제 내거에 급급해 나열식 정책 소개에 그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3주간 6대 목표, 50개 과제 발굴  
정차계 학계 등 4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혁신위는 3주간 17회의 간담회와 초청 강연을 열어 50개에 달하는 과제를 부산시에 제안했다.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민선 9대 부산시장의 도시 목표를 수립했다는 점이다.

미래혁신위가 제안한 도시 목표는 ▷내거 확대 ▷복지안전도시 ▷초광역



부산미래혁신위원회의 초청을 받은 송철호 울산시장 30일 부산시청에서 '친환경 그린 에너지' 신도시하는 부울경 조광역 경제권'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국재해양경제도시 ▷산학협력 중심 창업일자리도시 ▷AI 기반의 스마트도시 ▷탄소 제로 그린환경도시 ▷청년이 주도하는 문화관광도시 등 6가지다. 이 과제들은 추후 시와 협의해 정책화 여부가 결정된다.

내거 확대 ▷복지안전도시 ▷복지안전 모델이 적용되는 도시를, 초광역 국재해양경제도시는 남부권 상생협력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는 도시를 뜻한다. 산학협력 중심 창업일자리도시는 대학·기업 건 다량엔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도시, AI 기반의 스마트도시는 인공지능 기술이 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도시를 뜻한다.

탄소 제로 그린환경도시는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숲의 집 도시를, 청년이 주도하는 문화관광 도시는 우수한 문화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도시를 전제로 했다. 미래혁신위 하대경 위원장은 2일 "시가 실현할 수 있는 과제 발굴에 앞장섰다. 과제가 실현될 때까지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성과 급급해 나열식 정책 소개 한계  
비영의 미래혁신위 위원들이 송가리 게 달려왔지만 혁신을 재검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제안된 경우가 많았다. 이 기간 부산시 창업국 신설, 스마트-AI 5대 시범 사업 추진, 원형형 준비군을 위한 버스-산연장, 트로트거리 조성 등이 제안됐다. 하지만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준비단'은 이미 구성된 조직이며, '초중고교 교직원육성'은 학교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투입되는 만큼 '구축'도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발렌트 교실'과 유사하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해마성식 비전 제시에 그쳐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이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아쉽다고 말했다.

발제자들도 전문성과 커리가 면 경우가 많았다. 일선과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 완화"를 주제로 한 행사에서는 특정 업체에만 유리한 대중교통 노선 연장이 규제와 사제 배정 및 소/중대 민원 장구로 전락했다는 비판(국제신문)도 제기됐다. 21일 자 4면 보도)이 나오기도 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스마트-AI 도시 부산' 분야 발제자 2명은 스마트-이용에 제한을 수거하는 일에서 나와 경쟁적으로 자사 홍보에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시정 목표를 세운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과 협의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부산시의와는 외연에 반발할 자초하기도 했다. 신상에 부산시의 행정 의장은 인정을 통해 "미래혁신위가 마치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컨트롤 타워인양 인식되고 있다. 얼마 되지 않는 박 시장의 임기 동안 공직사회가 주도성을 잃고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래혁신위는 오는 10일 해단식과 함께 미래혁신정책을 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유정환 기자 yj@kookilnews.com

△부산일보 5월 3일 기사

여기에 더해 국제신문은 운용 과정에서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여러 차례 진행한 공청회와 간담회 등에서 일부 발제자들이 전문성과 거리가 멀었고, 발제 중에서 자사 홍보에만 열을 올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산MBC는 해당 기사에서 부산미래혁신위가 내놓은 과제 명칭의 생소함으로 부산시 관련 부서조차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했는데, 실제로 미래혁신위의 활동에는 'AI', '스마트' 그리고 '그린'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세부적으로는 '저소득층 인공지능 과외교사 무상지원', '스포츠 경기장 스마트화', '그린스마트 버스 정류장 시범사업' 등으로 명칭부터 어렵고

실제로 부산시 관련부서에서조차 내용을 잘 모른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미래혁신위는 5월 10일 해단식과 함께 그간의 결과물을 담은 ‘미래혁신 백서’를 시에 전달했고, 부산시는 제안을 적극 검토해 제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부산시정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언론의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